

한·중, 특허심판 협력 강화 나선다

-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 개최, 중국 특허심판 최신 동향 및 주요 판단 사례 공유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 특허심판원은 10. 27.(화) 9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(서울 강남구)에서 「2026년 한·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」를 개최했다.

이번 연구회는 중국 내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, 양국의 특허심판 제도와 주요 판단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중국 지식재산국(CNIPA)에 따르면, 중국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2022년 약 7,100건에서 2025년 약 9,300건으로 약 31% 증가했다. 이처럼 중국에서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도 현지 특허심판 제도와 주요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.

이번 연구회에는 중국 지식재산국 복심무효심리부의 우통이(Wu Tongyi) 과장 등 중국 대표단 4명을 비롯해 양국 특허심판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, 변리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.

첫 번째 분과에서는 양국의 특허심판 청구·처리 현황과 최근 제도 운영 동향을 소개하고, 심판 절차와 청구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. 특히 중국 측은 특허무효심판의 심리 절차와 특허권 정정 요건 등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.

이어 두 번째 분과에서는 특허무효심판의 주요 쟁점인 진보성 판단을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사례를 비교·분석했다. 중국 측은 음식 운반 시스템과 자전거 변속 장치 관련 무효심판 사례를 통해 선행기술과의 차이점, 기술적 과제 및 선행 기술의 결합 가능성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소개했다.

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변리사들이 중국의 특허심판 실무와 판단 동향을 이해하고, 현지 특허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“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, 현지 특허심판 제도와 판단 동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”며 “이번 연구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특허분쟁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28일에는 한·중 양국 특허심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무효심판에서의 정정 및 심리 실무, 인공지능(AI) 기반 심판 지원, 심판·조정 연계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, 양국 간 특허심판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
※ 붙임: 2026년 한·중 특허심판 사용자 세미나 포스터 / 사진은 행사 후 배포

담당 부서	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일승 (042-481-5879)
		담당자	서기관	김선아 (042-481-5917)
			사무관	강광석 (042-481-8610)

사전등록



2026 한·중 특허심판 사용자 세미나

2026. 10. 27. (화) 09:30-12:10
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

사회자: 강광석 사무관

시간	일정	발표자 / 비고
09:30~09:35 (5')	개회사	특허심판원장
09:35~09:40 (5')	참석자 소개	사회자
09:40~10:10 (30')	특허심판 제도 및 최근 운영 동향 - 심판청구·처리 건수 등 주요 통계 - 주요 제도 및 절차 - 최근 제도·운영상 변화 - 사용자 유의사항	MOIP 김주영 사무관
10:10~10:40 (30')		CNIPA Mr. WU Tongyi
10:40~10:50 (10')	질의응답	
10:50~11:05 (15')	휴식	
11:05~11:30 (25')	특허 무효심판의 주요 심결 사례 및 판단 동향	MOIP 성시경 서기관
11:30~11:55 (25')		CNIPA Ms. GAO Qian
11:55~12:05 (10')	질의응답	
12:05~12:10 (5')	폐회사 및 세미나 종료	사회자

* 참석자 대상 커피·다과 제공 및 퀴즈 이벤트 경품 증정



특허심판원
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